

# 세상의 차별과 혐오를 멈추기 위해

내일부터 27일까지 익산장애인영화제 'We벤져스' 개최

익산시는 내일부터 27일까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재미극장에서 2019 익산장애인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 익산장애인영화제는 장애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 복지제도의 미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 관련 소재의 영화를 통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기획된 영화제로 올해 11회를 맞았다.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지구 최강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어벤져스'를 패러디한 'We벤져스'로 세상의 차별과 혐오를 멈추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 히어로'라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는 장편 6개, 단편 8개로 총 14개의 작품이 상영된다.

이 상영된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인 에린에게 장애인 인권에 대해 질문해 나가는 '에린'과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이야기 '까치밭', 일본 정부에 맞서 재판을 이끈 이들의 뜨거운 이야기 '허스토리', 1980년 5월 광주 진실을 담은 영화 '백사문전사'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밖에도 '뽀구름', '수련회 가는 날', '터치' 등 다수의 단편 영화들이 상영된다.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 관객이 함께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 영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화제 상영작들은 시청각장애인을 위

한 자막 및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포함한다.

또한 재미극장에는 휠체어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하게 관람할 수 있고,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되며 선착순 입장이다.

2019 익산장애인영화제에 대한 문의는 전화(070-8282-8072)로 가능하며 상영작, 행사 일정, 부대행사 등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ismedia.or.kr)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전경.

## 전북도-전주영상위, 전북 카페 IN 서포터즈 지원사업 진행

전북도와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이하 전주영상위)에서는 도내에서 5회차 이상의 촬영을 진행하는 작품을 선정해 전북 카페 IN 서포터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 카페 IN 서포터즈 지원사업은 전주영상위 촬영지원 시스템의 지속적 관리의 일환으로서 전북·전주권역 내에서 촬영하는 작품의 다각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촬영 환경 개선 및 전북지역 내 서비스업체 이용 독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전주영상위는 전북 카페 IN 서포터즈 사업의 첫 번째 선정 작품으로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9월 중 촬영 예정인 공유, 박보검 주

연의 '서복' 촬영팀에 커피차와 분식차를 제공한다. '서복'은 '건축학개론'으로 잘 알려진 이윤주 감독의 차기작으로,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을 지키는 마지막 임무를 맡은 정보국 요원 '기현'이 서복을 차지하기 위해 나선 여러 세력들의 추적 속에서 함께 동행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서복'을 시작으로 '화이트데이', '소리꾼', '동행', '간택', '저산너머' 등의 작품이 전북 카페 IN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전주영상위는 도내에서 촬영하는 영화·영상 작품에 새로운 인센티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장영성 기자

## 무주군, 내일 저녁 가족뮤지컬 '돈키호테' 공연

무주군은 내일 저녁 7시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무주읍 최북로 15)에서 가족뮤지컬 '돈키호테' 공연을 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무주읍 전통공예공방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 주 수요일)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극단 21'이 돈키호테와 친구들이 함께 떠나는 신나는 모험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날 무대에 올려질 가족뮤지컬 돈키호테는 2011 김천가족연극제 수상작이자 2012 국립극장 우수공연축제 선정작으로 문화가 있는 날의 깊이를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 시설사업소 김현정 주무관은 "책에서만 보던 돈키호테를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생동감 넘치는 공연이 아이들에게 꿈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족뮤지컬 돈키호테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관련 문의는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시설관리팀(063-320-5639)으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가 최근 정읍시청에서 유물 기증식을 열고 9명의 기증자로부터 유물 580점을 기증받았다.

## 역사와 문화의 도시 정읍, 유물 기증 물결 쇄도 '눈길'

무성서원 통문 등 총 580점 기증받아... 9명 유물 기증자에 감사패 수여

정읍시가 무성서원 통문과 영주정사 망와, 상평통보 등 희소성이 큰 유물 580점을 확보했다.

시는 최근 정읍시청에서 유물 기증식을 열고 9명의 기증자로부터 유물 580점을 기증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기증식에서 유진섭 시장은 9명의 기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요 기증 물품을 보면 김재영(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씨는 상평통보를 포함해 조선 시대부터 근대까지의 화폐 자료와 고서, 음반 등 수백 점의 유물을 기증했다. 또, 박경목(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박철

(정읍 말고개길), 박천(정읍 청수1길) 씨는 각각 '京' 문양 조각벽돌과 영주정사 망와, 무궁화수 지도를 기증해 박물관 기획특별전 '정읍의 함성, 대한독립만세' 추진에 큰 도움을 줬다.

김세신, 김소희(전주 완산구) 씨는 삼국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해당하는 수 점의 토기를 박물관에 전달했다.

김지명(정읍 칠보면) 씨는 월남전 참전 기장 등 군사 자료와 정읍 학교사 자료를 박물관에 기증했고 김상욱(광주광역시 남구) 씨는 정읍농림고등학교 학생수첩을 전달했다.

기증된 유물은 기증자의 뜻에 따라 박물관 각종 전시와 학술·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증정과 박물관 특별전시 초대, 발간물을 제공한다. 특히 기증자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박물관 1층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게시하는 등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유진섭 시장은 "소중하게 보관하던 유물을 우리 시에 기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증자의 뜻에 따라 기증된 유물을 박물관 각종 전시와 학술·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해 정읍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물 기증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립 박물관(☎063.539.6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제7회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

**2019.9.27.(금) 09:30~ 익산시 실내체육관**

**주요 행사**

-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 장기자랑
- 지역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
- 유공주민자치위원회 시상 등

**주관** 익산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후원** 익산시 (859-5821)

---

### 2019 익산 평생학습축제 & 교육공동체한마당

**2019.9.28.(토) 10:00~18:00 중앙체육공원 일원**

**주요 행사**

-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 홍보체험관·민주시민특강·성인문해한마당·평생학습 4인1색·버스킹공연 여성회관 동아리 발표회·마술&버블공연 등
- 교육공동체한마당  
숨리골 마을학교·학부모 공동체·과학체험한마당·학생 농구 풋살대회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 등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주최** 익산시 **주관** 익산시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JEOLLABUKDO IKSAN OFFICE OF EDUCATION  
**문의** 익산시청 교육정보과(859-5155/5823)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850-8815)